

[TRANSLATED] Character Reference Letter

From: Jin Hee Hong (Mother)

On October 19th 1993, God granted the greatest blessing; my dearest second child was born. My son named Kyu Hwa Hong. Surrounded by the fanfare of his grandparents, aunts and uncles, and the rest of the family, a condition called Transient tachypnea took him over from the moment he was born and he could not breathe. He was immediately taken into the ICU. I could not bare to look at the tiny head of my 3kg baby riddled with needles and breathing apparatus through his chest. Although the doctors told us to prepare for the worst, he survived through the unspeakable pain and found life. In the wake of the seemingly impossible advice to be prepared for the death of my child, the priest and nun of the Catholic Church of Guwol in Incheon arrived to baptize him for his passing with his Saints' Name 'Luca.' However, after a month, my dearest son Luca beat all odds, began breathing and was in his mother's arms.

He was brought into this world though so much pain, but he did not show any sign of slowing down. Although he was stubborn, he excelled in sports and arts, and loved riding his bicycle. Having a youth art instructor as a mother, he entered in many art contests and won many trophies through his kindergarten years. He was always warm and generous, ensuring to assist anyone in need. Ever since he was a child, he always brought home and shared food with less affluent friends, such as one who lived above his grandparents' small restaurant after losing their parents, then he gave him a toy on his way out. After his kindergarten years, he immigrated with his family. In order to achieve his dreams on this land of opportunity with better education, he arrived in Easton, MD, to attend elementary school. He was a diligent student and although he felt a stranger, he made many friends and spent a happy childhood. As he was athletic, he played in the YMCA soccer team and showed much promise. Of course, even then, he ensured to coach and patiently practiced with friends who wanted his help. Then he relocated to Virginia, as he became a teenage boy. And one day, he began being harassed with racially charged insults from a white classmate in English for having a strange accent. The well-known sayings of "Go back to your country" and "low-class bum" triggered a fight with this boy, which resulted in a three day suspension for both. He continued to be bullied by this white kid and his friends, he began refusing to go to school. And although he was going through this existential crisis, he continued with his SAT Prep Schools and high grades in school.

However, friends that stayed around began having troubles and as he never could neglect those in need, he could not possibly say no to his friends, running from the law after their own parents gave up on them, and even those who he did not know very well, if they had no where else to go. He couldn't even say no to this friend who tagged along everywhere, as far as his SAT Prep courses. However, as he later realized that hiding those from the law is not the right thing to do, he moved far away to be with his brother in Las Vegas. After proudly placing his well-earned high school diploma in our arms, he began helping with the shirt press at his parents' dry cleaners. But his friends who remained in the area saw him living in a normal but happy family, and began visiting more and more and asked for help. With his kind heart and holding loyalty as the utmost value, he was repeatedly asked to do what he knew was not right. Not being able to neglect them, he tried to help them in little ways he can. He saw first hand that living a normal life does not come easy. His parents decided to move to Las Vegas to be with his brother after businesses closed and their house gone, they wanted to return to the happy times as when they first arrived. Although it was a foreign state, parents began their new jobs and he was happy to be with his family, inquiring about part-time jobs...

More than anything, he knows that his mother, father, and brother love him, have faith in him, and are waiting eagerly. He is pounding his chest, regretting his past. He is resentful and wants to come back to his family anew. He has the heart big and warm enough to help the needy, because he was baptized to be reborn. Everyone knew him to be the kind child on the first row, who would kneel and pray next to his mother.

1993년 10월 19일, 하노이에서 나는 선물을 주었다.
 나의 소중한 할머니아기를 데어왔다. 아들이었다. 이름은 동진하.
 할머니, 할머니, 아모 상하도, 모든 가족들이 축복속에 데어와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원래의 인종'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피부가 어둡다.
 피부가 조금씩 갈라지고, 3.0kg의 작은 아기의 머리위로
 여러개의 주사바늘이 꽂히고 가동엔 호흡장치선으로 자가 호흡을 하였다.
 의사 선생님은 기도의 기관이 막혀서라 했으나 그 작은 아기는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며 생명을 버텼다. 죽음은 좋아하라는 정친의 말
 같은 소리에 인연이 맺혔다. 하노이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평화자살로 오셔서
 대세를 주었다. 세례명 '호가'.
 그러나, 나의 첫사랑이. 호가는 그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훌륭하게 자랐다.
 하노이에서 DA 살아가는 여아들에게 인연이.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아들을 이겨낸 그 아이는 씩씩하게 자라났다.
 고장이 세진 하노이도 운동도 잘하고, 기동도 잘하고, 자기도 잘했다.
 기동 선생은 연아와 함께 애호도 잘하고, 상도 여러번 타며 행복한
 유년시절을 하노이에서 보냈다.
 그의 충성을 받고 피뎌서 인연이 주변의 훌륭한 친구나 이웃들을
 도우려 애썼다. 그가 어려서부터 정으로 데려와 노는 친구들은
 부모가 없이 하노이 생활을 하며 한아라지타 사느 친구나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와 정이와 사랑으로 돌봐주고, 불사가 되어갈때 제 장난감도
 주었다. 그렇게 유년시절을 보내고 2002년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오게 되었다. 더 넓은 세상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처음 도착지, 버지니아, Easton, 조지타운으로 건너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연이로 공부하며 남친이 생기게 되고 잘 어울리며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운동도 잘하며 동네 YMCA 축구팀에 참여하게 되고 재능을 보였다.
 물론, 그곳에서도 남동생으로 착한 성품으로 축구 좋아하는 친구를
 전성히 가졌다. 그리고 Virginia로 이사하게 되었다.
 Teenage Boy가 되었다. 어느 날 하노이에서 백인 친구에게서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 얼마간, 마음이 아팠다. "나의 나라를 가라고 '거지새끼'라는 말,
 그 아이와 사귀어서 해 둘다 3인씩 정한 것을 타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백인 친구를 통해서 학교로 가기 싫어했고, 정친의 호언과 괴롭힘을
 참으며 했지만 SAT 시험을 연이로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그러나, 또 주변에 훌륭한 친구 어려움에 처한 친구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되어 경찰에 폭력은
 부모도 포기하고 바쁜 친구의 친구, 처하기도 많은 친구가
 옆에 있어 훌륭한 친구라 생각하며 집으로 찾아오는 이를
 찾아내지 못하고 SAT 시험도 따라다니는 아이를 내치지 못했음
 그러나, 나쁜놈은 한 친구를 숨겨주고 모욕해주는데 잘못도
 판단이 없는 뒤에 깨닫고, 다시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주변의 나쁜 친구들을 떠나 멀리 형이 있는 Las Vegas로 떠났음.
 형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대학 high school 졸업장도
 부모님께 안겨드렸음. 그리고 다시 Virginia로 돌아와
 아버지 세탁소에서 shirts press를 하며 일을 배워나갔음.
 그러나, 예전에 있던 친구들을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 안에서
 열심히 아바왔을 뿐이고 사는 곳에 계속해서 찾아와 부딪혔고
 불려내었다. 거절못하는 그의 성격을, 그러는 중요한 가치로
 여기에서 사는 곳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친구들을 외면하지 못하게 작은 부딪힘을 맞이했지만
 그곳에선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나 판단,
 부모님과 함께 형이 있는 Las Vegas로 떠나기로 결정.
 부모님도 Virginia에 Business를 하고, 정도 지분해
 가족끼리 다시 처음 아인 생활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 지난해 아사했음.
 낯선 새로운 state에서 부모님도 새로운 JOB을 구했고
 그 해에 여러 part time JOB을 구해 행복한 가정안에 있었음...

그러나, 그는 알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형아, 아바, 형이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가족을 위해 후회하고 반성함
 그는 지금 뉘네에 후회하며,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아내처럼, 그는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주변의 훌륭한 이웃들, 친구들
 외면하지 못하는 착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처음 태어나 성장하게 해준 부모 덕분에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
 그리고, 또 형과 함께 성장해왔는데 많아 무뎌지고 기도 드렸던
 제하고 따듯한 사랑의 집을 주변 이웃이 알고 있게 해주었다,